BASF, Aniline사업 대폭 강화

1.9억파운드 규모 Geismar공장 가동 및 한양바스프 4만톤 공장 완공따라

BASF가 Geismar소재 Aniline공장 가동에 착수했고, 국내에서도 한양바스프가 올해말 Aniline공장을 가동할 계획으로 있는 등 BASF가 Aniline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BASF가 8500만 달러를 투자 · 건설한 Geismar소재 생산능력 1억9000만파운드 규모의 Aniline공장이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공장가동으로 BASF는 MDI(Methylene Diisocyanate)는 물론 MDI 기초원료인 Aniline시장에서 위치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Geismar공장은 Aniline/Nitrobenzene을 생산하는 설비로 이미 지난해 말 완공되었으나, 기술상 문제로 가동이 지연되어 왔다.
한양바스프우레탄(대표 최운재)도 오는 8월 Aniline/Nitrobenzene/MDI공장을 완공, 내년 초부터 4만톤 규모의 Aniline공장을 정상 가동, MDI용 3만1200톤을 제외한 9000여톤을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 국내 Aniline 수급동향

(단위:톤)

용 도	업체명	수요량	공급선				
			스미토모	Mitsui	ICI	미국	기타
고무약품용	동양화학	5,000	2,200	2,500	—	300	—
	삼원화학	500	500	—	—	—	—
	금호몬산토	700	—	350	350	—	—
	송원산업	700	—	700	—	—	—
	소 계	6,900	2,700	3,550	350	300	0
염Ⅲ안료용 및 기 타	코오롱유화	500	200	—	300	—	—
	이화산업	200	100	50	—	—	50
	태흥산업	100	—	—	100	—	—
	제일물산	1,200	—	400	—	800	—
	기 타	330	—	—	200	—	130
	소 계	2,330	300	450	600	800	180
합 계		9,230	3,000	4,000	950	1,100	180

Aniline 수요는 MDI시장과 성장을 같이하며, MDI시장은 건축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세계적으로 최근 5년간 MDI 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4~6% 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Aniline 공급에 수요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지난 6개월간 BASF의 Aniline 공장가동 지연으로, 기타 Aniline 생산업체는 재고처분이 가능, 보유하고 있던 재고를 75~80% 처분했다.
올해 세계 건축경기는 20% 정도 상승하고 MDI 수요도 신장돼 Aniline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BASF의 Geismar공장은 풀가동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iline가격도 회복세를 보여 현재 파운드당 40센트 이하에 형성돼 있는 컨트랙트가격 및 파운드당 30센트 이하에 거래되고 있는 스파트가격이 크게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한양바스프우레탄의 공장가동에 따라 기존 공급선인 일본의 Mitsui, Sumitomo 등의 시장고수를 위한 가격경쟁이 치열,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Aniline 수요는 91년기준 9231톤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대 일본(Mitsui · Sumitomo) 의존도가 76.3%이며, 이외 미국 12.4%, 영국(ICI) 10.3% 등이다.
89년에는 일본의 Sumitomo, Mitsui, 영국의 ICI, 독일의 BASF가 주 공급업체였으나, 90년 이후 일본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91년 BASF의 국내공급이 완전 중단된 것은 일본의 판촉이 강화되고 자체 프로세스가 낡아 자가소비만 생산하고, 지난해 신규 공장의 가동이 지연, 공급이 원활치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화학저널 1992/7/1>